

# 남원의 명동 '금동' 기록화

### 구도심 조사자료집 발간 4개월간 심층조사 진행

'남원의 명동'으로 불렸던 '금동'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 과거 화려했던 금동의 옛 정취를 한 눈에 엿볼 수 있는 조사자료집이 발간되었다.

B4 크기에 총 82쪽으로 이뤄진 금동은 △고생, 금동 거리의 기억 △역사와 도시지리의 변화 △걸어야 만나는 삶 △호모나랜드 in 남원 △가르경관과 건축물 △다시 길을 떠나며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금동을 지켜온 주민들의 기억을 더듬어 어제의 금동과 오늘의 금동을 기록했다.

1장 고생, 금동 거리의 기억'에서는 근현대 금동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발췌했다. 11쪽에 실린 현대판 춘향, 36면 수필한 최여사 고교생이던 남편 사진 간직' 제하의 기사에서는 춘향의 고장답게 남원에 많은 열녀가 나왔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2장 '역사와 도시지리의 변화'에서는 1872년에 제작된 지방지도와 1948년,



1981년, 2016년 항공사진이 나란히 실려 금동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3장 '걸어야 만나는 삶' 편에서는 상가의 사진과 분위기, 그리고 주인의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됐다. 41쪽 '예실린' 골목집'에는 '종가 뒤쪽, 한의원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은 차보다 사람들이 활약하던 시절에 멈추어 있는 듯하다. 남원의 피맛골이랄까. 그 골

목 끝나는 즈음에 골목집이 있다.(중략) 40년 이상 금동을 지켜온 상점의 이야기를 담아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금동의 생생한 추억을 엿볼 수 있다. 남원구도심기록화 작업은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따라 사라지거나 원형으로 복원되기 어려운 남원의 공간과 삶을 기록하기 위해 남원시가 기획했다.

'금동'은 남원구도심기록화작업의 1차 결과물로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심층조사(구술 등)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남원시는 앞으로 (구)남원역과 동충동, 축항동, 공실시장 등의 구도심은 물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을 기록화하여 남원의 삶과 공간을 설명하고 추억하는 자료로 보존할 예정이다.

또한 이렇게 조사된 기록은 남원다움 라키비움 콘텐츠와 기록화 조사집으로 구성하여 남원시민은 물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원의 이야기를 알리고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다움은 도서관·기록관·미술관의 기능을 합친 복합문화공간으로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금동 고생지구에 문을 열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여는 축제마다 대박... 축제의 고장 우뚝

###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2000여명 참여 만족도 높아 2만5000kg 김치 물량 소진

임실군이 올해로 두 번째로 개최한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이 도 시민과 지역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김장페스티벌은 2000여명의 참여 속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축제의 고장' 임실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줬다.

올해 김장페스티벌은 사전신청 기간부터 참여희망자가 대거 몰리면서 당초 목표치인 2만kg을 넘어선 2만3000kg이 사전에 접수됐다. 또한 현장에서 2000kg이 추가로 늘어나는 등 2만5000kg 상당의 김치 물량이 소진됐다.

이는 지난 해 1만1000kg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 했다는 평이다.

이틀동안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일찌김치 김장김치



임실군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개최한 가운데 심민 군수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를 담그려는 축제 참가자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가족, 이웃들과 함께 삼삼오오 짝을 이뤄 자신들이 신성한 절임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미리 준비한 김치통에 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축제는 김치명인인 유정 임씨의 지도 아래 일괄적인 배추 절임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이

뤄지고, 지역농가가 직접 재배한 고춧가루와 무, 생강, 양파 등 고품질 농산물을 사용한 맛깔난 양념이 큰 인기를 끌었다.

심민 군수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고, 올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며 생활 속 축제로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가 시청 강당에서 '옛 남원역·KBS방송국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5회 남원시민 원탁회의가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남원시-시민 '양방향 소통' 원활

### 옛 남원역·KBS방송국 활용방안 원탁회의 개최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민 원탁회의가 시민들의 소통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근 '옛 남원역·KBS방송국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5회 남원시민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시민·학생 130여명이 시청 강당에 모여,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눈 이번 원탁회의는 시민이 직접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의미에 어느 때보다 열띤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공간을 미리 둘러본 시민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호응을 높이며 그 열기를 더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조세정의 실현 앞장

### 체납세 징수 막바지 총력전

순창군이 이달 30일까지를 '체납징수방식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막바지 총력 징수에 나섰다.

이번 체납징수방식 특별징수기간은 출납폐쇄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월체납액 증가를 막고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식고취 및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한다.

군은 읍면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맞춰 11월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예고 886건과 최고서(독촉장) 5,567건을 일제 발송 완료하고 이번 달까지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재산압류, 봉급압류,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관허사

업체합동 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야간)활동과 더불어 경제교통과와 협업을 통해 30만원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등 체납차량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오는 29일에는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순창군 IC 및 관내일원에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 불법명목의 차량등 하반기 유관기관(군, 경찰청, 도로공사) 합동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처분등으로 재산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것을 당부하며 "자주 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임실군 강진면 행복보장협의체 '할매, 할배집 가는날' 사업 실시

임실군 강진면행복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준백, 강준희)는 어르신을 위한 '할매, 할배집 가는날' 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내 홀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파스, 안티프린 등 건강용품을 직접 배달하고 건강과 생활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말뚝과 안마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특히 건강, 생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복지서비스로 연계를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강진면행복보장협의체 위원, 강진 권역맞춤형복지지원원 20여명은 60여 가구를 찾아 복지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제도 홍보에 나섰다.

앞으로 민·관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고독사 사전예방, 소외된 이웃을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이준백 공공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권역별 행복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이웃 사랑 실천의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하나스톤 공장, 순창에 등지

### 사업비 13억원 투입 준공

(주)하나스톤의 구조용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이 순창군에 등지를 틀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주)하나스톤은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충남 아산공장, 경남 의성공장에 이어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134에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해 제3공장을 신축했다.

관련해서 지난 11일에는 황숙주 군수와 기업관계자 마을주민들 100여명이 참석한 준공식도 진행됐다.

(주)하나스톤 조영휘 대표는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과 회사가 상생하는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에는 농공단지 5개소에 부지면적 66만763㎡를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미 분양된 부지 9만3,961㎡를 분양 중에 있다.

미 분양된 부지에 분양을 원하는 기업은 전화(063-650-1312)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리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리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